

한진수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회장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labvet@konkuk.ac.kr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제1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이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 건국대학교 한진수교수를 초대회장으로 하고 138명의 실험동물분야 근무수의사들을 회원으로 한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현재 건국대학교수의과대학내에 사무소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한국우병학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축산물자체검사원협의회,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한국양계수의사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총 7개의 산하단체가 있으며 각기 직능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수의사의 능력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에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제14차 교육을 대한수의사회관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본회가 대한수의사회 산하 기관으로 정식 가입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도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하였고, 우리 또한 대한수의사회와 각 지역 수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 본회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수의사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여 이참에 본인 이 걸어온 길과 본회의 취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1999년 본회의 필요성을 이미 대한수의사회지(2회 연재)를 통해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제목: "실험동물전문수의사를 꿈꾸며"). 당시에는 소동물수의사에 대한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실험동물전문수의사라는 직업을 얘기하기엔 어설플 때였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수의과대학 교수 중에는 수의사가 의사 딱같이나 한다고 비아냥하던 시대임), 국내 수의과대학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과학연구소에서 실험동물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직접 뛰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전에도 모교에서 교수로 영입하고자 종종 제의를 받았지만 실험동물전문수의사가 일할 수 있는 국내 실험동물산업 및 실험동물의학 현장(필드)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사해 오던 바, 급기야는 잘나가던 삼성의료원을 9년 만에 그만두고 국내 실험동물생산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고액의 연봉도 포기하고 일개 벤처기업에 들어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의 생산을 통하여 국내 연구자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그로 인하여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3년간 매일같이 왕복 300키로의 직장을 다니며 전국을 앞마당 돌아다니듯이 영업활동도 겸하다보니 15만 키로에 달하는 운전기록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차가 갑자기 정차하거나 엔진에 불이 난 적도 수차례입니다. 그러던 차에 모교에서 다시 교수공재의 기회를 얻어 이제 후진을 양성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2005년부터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실험동물의학교수로 부임하여 예비수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실험동물관련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실험동물시설 및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였고, 실험동물 관련 연구자도 급증하여서 한국실험동물학회는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9~21일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거행합니다. 서울대 박재학 교수님, 충북대 강종구교수님 등과 함께 3년간의 준비 끝에 실험동물기술사(현 기술원) 제도를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여 1,2급 기술원을 1500명 이상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화와 동물복지의 보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과학적이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동물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삼성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실험동물시설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병원 등 많은 곳에 모범적인 실험동물시설이 급증하고 수의사의 활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지난 2006년 8월 창립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재학교수님이 초대 회장을 맡아서 시작한 것인데,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본회는 지금까지 국내에 실험동물 전문수의사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래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초기 3년간 소수정예모임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으나 임원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살신성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인정문제가 수월하지 않아서 국내 현실과 국제 수준과의 사이에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초대 인정수의사가 17명이 배출되었고, 2009년 10월에 최초로 시행된 인정시험도 무사히 시행하여 17명(초대인정수의사 6명 포함; 초대인정수의사도 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이

합격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1명의 인정수의사가 새로이 배출됨으로써 28명의 인정수의사(실험동물전문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의 수도 150명에 달하고 있어서 실험동물전문수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본회의 교육과 인정사업이 그만큼 절실한 시기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의 현실도 근래에 급격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개정 동물보호법의 공표에 이어 2009년에는 실험동물관련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수의사의 역할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법적 지위나 처우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동물실험 현장에서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요구가 확연히 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법적 발효로 인해 전국에 실험동물 복지와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바, 실험동물전문수의사를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험동물법률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도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채용조건이 필수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동물실험환경이 보다 선진화되고 전문화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실험동물전문수의사의 활동무대가 크게 확장될 것이며,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 현장에서 그 진가가 인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실험동물수의사회인 I-ACLAM(International Americ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의 회원국이 되어 외교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인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ACLAM), 유럽(ECLAM), 일본(JCLAM)에 이어서 한국(KCLAM)뿐입니다. 그동안 수립한 본회의 실험동물전문수의사 인정제도를 I-ACLAM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한 교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는 괄목할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의 기준서가 되는 미국 ILAR의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일명 The Guide, 또는 NIH Guide)은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제7판이 출간되고서 무려 14년 만에 제8판이 이제야 출간되었습니다. 그만큼 개정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몇 년 전 부터 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자 편집장과 소통했는데, 이번에 NAP(National

Academy Press)에서는 인터넷판으로 미리 가출간한 것입니다.

간단히 이번 내용 중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크기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만, 설치류에서 포유중인 모체의 페이지 크기가 신설되었고, 토끼 페이지의 높이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생동물의 기준과 지침이 대폭 증설된 것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구성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 비전문가 1인이었던 것이, 내외부에서 비전문가 1인,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인 1인 등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수의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실험동물학 및 의학에 교육과 경험이 있거나 자격 있는(면허가 있는) 수의사(DVM certified)”로 규정하고 여기에 전문자격을 병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본회에서 인정받으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험동물전문수의사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 됩니다(첨부 1). 그동안 국제실험동물수의사회에서 우리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를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래 동안 고분으로 도움주신 미국 North Dakota 대학의 이갑재교수님과 박재학 전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첨부 2). 앞으로는 각 국 간에 실질적인 차원에서 상호인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한국의 실정이 실험동물전문수의사가 마음 놓고 일하기에 어려운 현실과 여건이지만, 지금 이야말로 실험동물 복지한국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우리 수의사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간절한 소망이 결실을 맺을 그 날을 위하여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첨부 3)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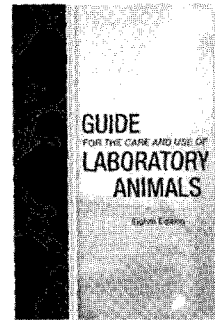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 Animals

<http://www.nap.edu/catalog/12910.html>

p.25

Program Oversight

The Role of the IACUC



IACUC Constitution and Func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IACUC is to oversee and routinely evaluate the Program. It is the institution's responsibility to provide suitable orientation, background materials, access to appropriate resources, and, if necessary, specific training to assist IACUC members in understanding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evaluating issues brought before the committee.

Committee membership includes the following:

- A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certified (e.g., ACLAM, ECLAM, JCLAM, KCLAM) or with training and experience in laboratory animal science and medicine or in the use of the species at the institution.
- At least one practicing scientist experienced in research involving animals.
- At least one member from a nonscientific background, drawn from inside or outside the institution.
- At least one public member to represent general community interests in the proper care and use of animals.

첨부 2

〈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임원명단 〉

수입	계	국내
회장	한진수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문	이영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갑재	University of North Dakota
부회장	김형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
	이민재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감사	김철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충용	안전성평가연구소
IACLAM 대사	박재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육인정위원장	이병한	이산생명과학연구소
	강병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인정위원	권중기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제정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교육인정간사	김승연	연세대학교실험동물연구센터
총무이사	최양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총무간사	염수청	서울대학교 특수생명자원센터
총무간사	이홍수	안전성평가연구소
국제이사	진희경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국제간사	석승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섭외이사	심하정	호서대학교
섭외간사	김중성	삼성생명과학연구소
법제이사	최연식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법제간사	김희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홍보이사	허경행	국방과학연구소
홍보간사	황지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무이사	송시환	(주)캠온
재무간사	전현정	건국대학교
지 회		
경기강원지회	김중성	
충청지회	김충용	
경상지회	진희경	
전라지회	권중기	

첨부 3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홈페이지(http://kclam.org)

Copyright © 한국실험동물전문수의사회(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 2008 - 2010.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양천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TEL) 02-2049-6114 FAX) 02-9407-6114
 Homepage : www.kclam.org E-mail: labvet@konju.ac.kr